

## 포스타

### 1. 난소의 과립층 세포 종양의 세침흡인세포학적 소견

- 1 례 보고 -

####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of Granulosa Cell Tumor of the Right Ovary

순천향대학병원 해부병리과  
곽정자, 권계현, 진소영, 이동화

과립층세포종양은 모든 난소종양의 10% 미만을 차지 하며 세포검사에서는 드물게 접하게 된다. 임상적으로는 환자의 약 10%에서 심한 복수를 동반하는데 체액세포검사시 종양세포가 세포학적으로 암전하게 보이고 세포병리 의사가 과립층세포종양을 집할 기회가 드물기 때문에 간혹 중피세포로 오인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과립층세포는 중피세포에 비해 세포질의 양이 적고 핵막의 함입이 심한점, 세포간의 창이 없이 세포간의 경계가 불분명한 점, 여포상 배열을 하는 점 등으로 감별할 수 있다. 저자들은 최근 세침흡인세포검사로 진단된 우측 난소의 과립층세포암종 1례를 경험하고 보고하는 바이다. 65세 여자 환자가 약 2년전부터 하복부에 주먹만한 종괴가 만져졌으나 특별한 치료없이 지내다가 1년전부터 종괴의 크기가 점차 커지고 약 4일전부터 심한 복통이 있어서 내원하였다. 과거력상 15년전에 자궁근종으로 자궁적출술을 시행받았다. 이학적 검사상 복부가 팽만되어 있었고 제대부에 15×15cm 가량의 크고 단단하며 분엽상을 보이는 종괴가 촉지되었다. 복부전산화단층촬영에서 광범위한 괴사를 동반한 커다란 후복막 종괴가 관찰되었으며 주위에 다발성으로 림프절이 종대되어 있었다. 방사선학적으로 우측 난소 종양을 의심하여 세침흡인 세포검사를 시행하였다.

도말소견상 세포가 풍부하고 균일한 세포들이 대부분 느슨한 군집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일부 여포상 배열을 보이는 부분도 있었다. 종양세포들은 소량의 세포질을 함유하고 세포간의 경계는 불분명하였으며 핵은 크기가 균일하며 둥글거나 난원형이며 간혹 긴 구열을 가지며 염색질은 섬세하였다. 드물게 Call-Exner 소체가 관찰되기도한다. 과립층세포종양의 의진하에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육안소견상 난원형의 낭종성 종괴였다. 종괴는 크기가 5.5×4.5×4.0cm 이었고 표면은 갈색으로 매끈하였고 절단면 소견상 노란색을 띠는 고형성인 부분과 낭성 변화와 출혈 소견을 보였다. 현미경소견상 비교적 크기가 균일한 둥글거나 또는 난원형인 세포들이 판상으로 배열하고 있었으며 특징적인 Call-Exner 소체도 흔히 관찰되었다.